

‘천문’이라는 길 위에서 책, 각종 강연, 영상, 농부 등 독자적인 ‘우주 커뮤니케이터’ 은하를 꾸려나가고 있는 이주원 동문. 청춘들에게 그가 보여주는 본인의 길은 어떤 모습일까.



R&D 예산 삭감이 우리학교 연구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024년 3월 5일 화요일

대학주보

의대 561명 휴학 신청 유급 등 후폭풍 우려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서울】정부에서 의과대학(의대) 증원 확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우리학교 의대 학생 561명 전원이 단체 휴학을 신청했다.

우리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은 <의료정책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는 점 ▲근거 없는 의대 증원은 교육의 질 저하를 필히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들며 의대 재학생 561명 전원이 2월 20일을 기점으로 동맹휴학 혹은 이에 준하는 행위를 결행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1월 개강인 본과 4학년 학생과 2월 개강인 본과 1, 2, 3학년 학생들은 현재 등교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 인턴, 전공의 대부분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아직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의대 교수회의 회장 김우식(내과학) 교수는 “경희의료원의 경우 약 200명은 교수와 전임의로, 또 다른 200명은 전공의 레지던트로 구성되는데, 현재 50%의 인력이 다 나가버린 상태”라며 “혹시라도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남은 의료진들이 연장근무까지 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허성혁(신경과학) 교수는 이번 사태 대책으로 의대 교수협의회 역할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개원의들이 주류인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며 “전공의가 떠나 문제가 되는 병원은 대학병원이고, 우리는 전공의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 과업 때도 교수협의회가 많은 역할을 했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 또한 “사태가 이렇게 되기

까지 바로 잡지 못해 선배 의사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각종 의사단체(의사협회, 의대 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의대 학생협의회)가 함께 심사숙고하여 이른 시일 내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지만, 김 교수와 허 교수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대 증원 규모에서만 타협점이 나오면 집단행동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허 교수는 “정부에서 증원 규모를 천 명 아래 선에서 제안한다면 어느 정도 타협이 될 것”이라며 “대화의 창이 열리기 시작하면 학생과 전공의도 돌아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휴학 허가권을 가진 의대 허영범(해부학) 학장이 본인 제자들이 한꺼번에 휴학하는 것도 원치 않으실 것”이라며 휴학 허가가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생이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를 지속한다면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의대는 F 학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유급된다. 휴학과 유급으로 전체 학년이 1년 밀리게 되면 당해 인턴, 군의관 등 공공의료 인력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 예과 2학년생은 1년을 쉬면 올해 신입생과 같은 학년에서 공부하게 돼 강의, 실습, 취업에서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

두 교수 모두 이번 사태 이후의 상황을 우려했다. 먼저 김 교수는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한다는 정부의 겁박으로 필수 의료를 전공하려 했던 얼마 남지 않은 진짜 의사들마저 그만두고 해외로 갈까 두렵다”며 “이 사태가 끝나면서 필수과가 붕괴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휴학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막대하고 환자와 동료 의사들한테 결국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모든 문제를 떠나 그 후폭풍이 정말 두렵다”고 밝혔다.



2024 입학식 현장

지난달 29일 평화의 전당에서 2024 입학식이 열렸다.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신입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 생활의 포문을 열었다. 태권도 시범단 및 양 캠퍼스 응원단의 축하공연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관련 기사 3면)

정혜원 기자 jhw00070@khu.ac.kr

축제를 위한 총학? 역할찾기 시작해야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1회 | 늘어나는 학생회 구성 실패, 원인을 짚어본다

이전보다 낮아진 총학생회(총학) 투표율과 반복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문제는 매년 지적된다. 이는 학생 자치의 위기일까, 혹은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우리신문은 대학 총학의 역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총 4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학생회 구성에 실패해 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인 단과대학 단위는 문과대학, 호텔관광대학, 한의과대학, 자율전공 학부로 네 곳이다.

과 학생회 단위로 살펴보면 물리학과, 약과학과, 프랑스어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연극영화학과, 도예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의학과로 총 10곳에 달한다. 서울권 주요 대학 15곳 중 총학을 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인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동국대, 홍익대로 5곳이다. 선거가 진행됐지만 단선으로 진행된 대학은 우리학교를 비롯해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였으며 경선으로 진행된 학교는 연세대, 건국대, 이화여대뿐이었다.

▶ 8면으로 이어짐

사령

- 면 <국제뉴스팀장> 박서현(철학 2022)
- 명 <국제뉴스팀장> 황인찬(건축공학 2023)
- <기획팀장> 박상희(미디어학 2021)
- <인물팀장> 김동희(미디어학 2021)